



개혁신학의 특성과 한국교회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ed Theology
and Korean Church*

이환봉(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162
2. 개혁신학의 특성 ■ 163
 - 2.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 167
 - 2.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 169
 - 2.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 171
 - 2.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 172
 - 2.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 175
3. 한국 개혁신학의 현주소 ■ 177
 - 3.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 179
 - 3.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 181
 - 3.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 184
 - 3.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 186
 - 3.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 187
4. 결론: 한국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천적 과제 ■ 191

요약

개혁신학의 특성과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는 개혁신학의 원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적인 원리와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오직 성경으로”-개혁자들은 인간 이성과 교회전통을 앞세운 로마교와 새 계시의 가능성을 주장한 재세례파에 대항하여 오직 성경 만이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과 원천임을 강조하였다

2) “오직 그리스도로”-개혁자들은 보편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육하신 자기계시아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성경적으로 확정하였다.

3) “오직 은혜로”-개혁자들은 로마교의 인간구원을 위한 신인협동 설에 반대하여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오직 믿음으로”-개혁자들은 칭의를 개인의 영적 도덕적 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전가(imputation)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선 행과 성화의 노력이 구원(칭의)의 근거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개혁자들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1)개혁신학의 원천연구를 통해 칼빈의 신학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2)개혁신학은 오늘 교회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 관련성을 추구하여 교회와 사회에 대한 주도적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3)칼빈과 역사적 개혁주의를 연구할 수 있는 모든 도서와 자료가 총괄 수집된 전문도서관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학술연구의 세계적 기반을 형성해 가야한다. 4)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교회의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

개혁신학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요어

개혁신학, 한국교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ed Theology and Korean Church

Prof. Dr. Hwan-Bong Lee

Korean Presbyterian Church started to exhibit a strong tendency to distance herself from the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It is worthwhile to reflect upon the characteristic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in 5 points: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a gratia, sola fide, soli Deo gloria.

1)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was considered as the only standard for faith and theology by the Reformers against both the Roman Catholics arguing the priority of human reason and ecclesiastical tradition, and the Anabaptists arguing possibility of new revelations.

2) solus Christus: Jesus Christ alone was believed the self-revelation of God and confessed a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by the Reformers against universal salvation and religious pluralism.

3) sola gratia: Human being was viewed as totally depraved and impotent to save himself by the Reformers and thus salvation was believed to be granted only by the sovereign grace of God against the Roman teaching of cooperation of the human being with God on the matter of salvation.

4) sola fide: As soon as man is united with Christ, he is

clothed with perfect holiness of God and thus imputed with perfect righteousness of Christ. The Reformers believed that good deeds of human being and their effort for sanctification cannot function as foundation or instrument of salvation.

5) soli Deo gloria: The Reformers emphasized life centered on God for His sovereignty and glory in all areas of human life.

For new revival of Reformed theology in Korea four theses are now proposed;

1)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heology of Calvin with precision and depth by delving into his writings in their original languages (i. e. Latin and French).

2) It is necessary to recover a leading role in our church and society by the pursuit of its relativity to actual situations we face today in the realm of pastorate and spiritual life.

3) It is necessary to build a specialized library which can function as a basis for the study of Reformed theology.

4)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hurches and to devise a way to enlarge a financial support for the study of Reformed theology

Keywords

Reformed theology, Korean Church,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a gratia, sola fide, soli Deo gloria

1. 서 론

2009년은 16세기 마르틴 루터에서 부터 요한 칼빈에 이르기 까지 많은 개혁자들이 주도한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이 일어난 지 492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칼빈 출생기념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당시 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였다.¹⁾ 이 말은 교회개혁이 중세 개혁자들의 시대에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semper reformanda*)되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모토는 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큰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고들 하지만 소위 “성장고통”(growing pain)을 통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모든 장로교회들은 모두 저마다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개혁신학과 신앙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점점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며 그 본래의 생명력과 역동성과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 이환봉 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Th.B.) 및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한 후 남아공화국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교의학을 전공하여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Calvin College & Calvin Theological Seminary의 The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서 객원교수(Faculty Research Fellowship)로서 칼빈의 신학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담당 교수이며 개혁주의학술원 원장이다. 저술로는 『현대 복음주의 성경관 논쟁』,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현대인을 위한 개혁신앙과 윤리』, 『개혁주의 성경관』 등이 있다.

1) 1955년 Oxford의 Mansfield College에서 개최된 Dale Lectures에서 W. A. Visser't Hooft 가 이 슬로건의 기원을 화란 신학자 Gisbert Voetius에게 돌릴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이 형식 외에도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the church reformed, always to be reformed) 또는 “*ecclesia semper reformari debet*”(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cf. H. P. Nebelsick, “*ecclesia semper reformari debet*,” *ReFLM* 18(1984), p.59.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말하며, 제2의 교회개혁이 바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개혁신학이 처한 위기적 현실을 살피면서 앞으로 개혁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우리의 실제적 노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구하고자 한다.

2. 개혁신학의 특성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의 보편적 특성은 역사적 개혁신학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이 너무 편협하여 개혁신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미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개혁신학의 풍요와 생동적 영향력을 축소시켜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 역사적 기원을 칼빈에게서 찾았고 칼빈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우월성을 주장할 때에도 칼빈의 신학을 루터의 신학에 대비하여 설명해왔다. 예를 들면, 루터파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인간론적 차원에 머물지만 개혁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론적 차원에 까지 나아간다고 했다. 그리고 성찬론이 로마교의 화체설에서 루터파의 공체설로 그리고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로 단계적 발전을 해왔다고 본다. 즉 로마교의 극복이 개신교이고 루터신학의 발전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베인톤(R. Bainton)은 개혁교회의 “개혁이란 말은 그들이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즉 개혁이란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 한다”고 말한 것이다.²⁾ 이러한 대립적인 설명방식은 까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루이스 벌코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즐겨 사용해온 방식이다. 그래서 루터신학은 개혁신학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것은 자연히 개혁신학의 연구에서 루터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560년대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혁파 또는 개혁신학은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는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사실상 개혁파와 루터파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은 후종교개혁 시기인 1590년대 이후 루터파가 성찬론과 기독론에서 루터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복음주의 개혁파”로 지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³⁾ 따라서 개혁신학의 역사적 연원에서 루터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물론 칼빈의 신학과 루터의 신학에는 정도에 있어 상호 구별될 수 있는 각자의 고유한 특징과 강조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워필드(Warfield)의 지적처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종류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⁴⁾ 당시 개혁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강조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종류의 종교개혁사상에 상호연대하고 있었으며 개신교의 핵심적 주장과 교리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성례론과 교회론을 제외한 칼빈의 신학사상은 이미 루터에 의해 대부분 먼저 착상되었던 것이고, 다만 칼빈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체계화

2) R.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p.39.

3) Heinrich Heppe, *Ursprung und Geschichte der Bezeichnungen 'reformierte' und 'lutherische' Kirche* (Gotha, 1859), 68-95.

4)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0), p.289.

또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칼빈의 신학은 동시대 개혁자들인 부서, 츠빙글리, 불링거의 신학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⁵⁾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개혁신학의 연원과 특성은 루터로부터 시작하는 동시대의 모든 개혁자들의 신학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개혁자들 모두에게서 배워야 하고 서로의 연관성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칼빈도 성찬론에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통합을 통한 당시 종교개혁의 공동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고 서로에게 있는 정도의 차이에 집착하기보다는 양자의 성경적 주장을 포괄하는 보다 성경적인 입장을 수립하여 상호연대하기를 희망하였다.⁶⁾ 그러나 우리는 루터와의 정도의 차이에 너무 집착하여 루터교회와 너무 소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은 성찬론,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예정 교리 등에서 나타난 바대로 전반적으로 보다 성경적인 균형(via media)을 이룬 신학 즉 개혁신학의 표준적 완성판이기에 개혁신학 연구의 출발점과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Heppe의 말대로 1590년 이후 비로소 루터파가 칼빈의 신학을 지지하는 자들을 ‘복음주의 개혁파’로 지칭하였기에 그 이후 오늘날 좁은 의미에서의 개혁신학을 칼빈의 신학으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항상 동료 개혁자들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포괄적인 이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두의 신학이 추구하는 목적인 바 철저

5) Cf. J. Cadier, *Calvin*, 94ff.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신학부 교수였던 자끄 구르부와지에르 (Jacques Courvoisier)가 한 부씨와 칼빈의 관계에 대한 인상적인 비교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의 길들인 사람』, 108 : “사람들이 부씨를 공부한 다음에 칼빈을 읽으면, 그가 꼼꼼히 따져 가지들을 치고 잘 정리했으며, 사상적으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또 하나의 부씨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6) Cf. Wim Janse, “The controversy between Westphal and Calvin on infant baptism (1555-56),” 국제 학술 세미나, 한국칼빈학회/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공동 주최 (2007, 8).

하게 성경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결음 더 나아가 개혁자들의 신학적 뿌리인 교부신학자들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 까지 개혁신학 연구의 반경과 깊이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원원을 칼빈을 중심한 모든 개혁자들의 신학에서 찾는다면, 따라서 개혁신학의 특성도 칼빈의 신학 또는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특성에서만 찾지 말고 보다 더 철저한 성경적 신학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공동의 핵심적인 교리와 신학적 강조에서 찾아야할 것이다.⁷⁾ 사실 이것은 우리가 칼빈신학 자체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비적으로 칼빈신학의 탁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적인 원리와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칼빈 이전에 종교개혁 초기에서부터 제시되어 여러 개혁자들을 통하여 거듭 반복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직 성경으로”는 Bucer(1536)와 칼빈(기독교강요 3.17.8)에게서 사용되었고, “오직 은혜로”는 Karlstadt(1519), Bucer의 복음서 주석(1536), Vermigli의 로마서 강의(1558), Wolfgang Musculus의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강의(1561), 칼빈

7)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247. 만약 개혁신학을 칼빈의 신학에만 국한한다면 나겔이 말한 바대로 칼빈신학의 특성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개념, 이성과 계시의 가교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로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The Reformed)의 중요한 신앙과 사상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사실상 칼빈 연구가들도 칼빈신학의 특성과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겔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칼빈의 특별한 교리로 간주되지 않는 신학의 일면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 역설적으로 칼빈은 동시대의 개혁자들의 신학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강요 2.3.11., 3.11.5., 3.14.5., 3.24.12.)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는 루터의 갈3장과 롬3장의 번역(1521), Melanchthon의 Loci Communnes(1521), Karlstadt(1519), Oecolampadius(1524), Bucer(1527, 1534), Bullinger(1534), Vermigli(1549), Calvin(기독교강요 3.3.1., 3.11.1., 1.11.19., 3.14.17.)에서 사용되었다.⁸⁾ 이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공유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다섯 가지의 “오직들”(Solas)을 우리의 구원론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얻으며 그 믿음은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에 근거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결코 구원론과만 관계되어 있지 않고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신학의 주요한 원리와 특성이 무엇인지 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역사적 주장들은 오늘의 신학적 사고와 행위가 혼란에 빠진 위기상황에서 새롭게 그 의미의 중요성을 잘 들어내고 있다.

2.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우(右)로는 로마 가톨릭교(Roman Catholicism)에 대항하였고, 좌(左)로는 재세례파(Anabaptist)와 대항하여 오직 성경만을 바른 신학과 구원적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확립하였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로마 가톨릭교는 인간이성과 교회전통을 앞세웠고, 토마스 뮌처를 중심한 재세례파들은 성령으로부터의 직접적 계시 즉 새 계시의 가능성성을 주장하

8) R. Scott Clark, *Whence the Reformation Solas?* <http://heidelblog.wordpress.com>

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 곧 신학의 유일한 표준과 원천으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하는 출발점과 최종적 권위로 삼았다.⁹⁾ 그리고 그들은 이 “오직 성경”的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전통이 신학의 원리(principium)가 되거나 성경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어떤 세속 철학과 사상에 대한 타협과 굴복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的 원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의 직무와 전통적 신조서들을 무시하고 각 개인이 저마다 성경에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그러한 각 개인의 주관적 성경이 해를 정당화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에로의 초대를 각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였지만 초대 교부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자들은 성경을 판단하는 인간 이성의 잘못된 사용은 단호히 반대하였지만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명료화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유력하게 변증하는 노력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혁자들이 이 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신학과 신앙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와 가르침에 항상 충실하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9) Cf. Martin Luther, "Against the Execrable Bull of Antichrist," in Bainton, *Here I Stand*, p.162 : “이 (교황)최서는 성경의 그 어떤 증거도 없이 그 자체의 말로 나를 정죄하고 있으나 반면에 나는 나의 모든 주장들을 성경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무지한 적 그리스도 당신에게 질문하는바 당신이 과연 당신의 그 별거벗은 말들로 성경의 갑옷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John Calvin, *Inst.*, 1.13.21. :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말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2.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의 사제주의(sacerdotalism)는 구원의 필수적 매개(necessitas media)인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그리고 선행에 의한 구원 교리와 공적주의 교리, 이와 연관된 면죄부 교리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중보적 능력을 가진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정점에 마리아를 두게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상 인류의 공동 대속자(co-redemptrix)와 공동 중보자(co-mediatrix)로 추앙하며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만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서 서정시인 이었던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가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의 많은 르네상스 지성인들은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적 진리가 드러나 있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에 근거한 자연신학과 자연종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되 심지어 구원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10) 사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제도, 의식, 기구 등의 권위를 앞세운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의 서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의 성례를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와 필수적인 매개(necessitas media)로 생각하며, 그 성례는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례의 주인과 은혜의 원천이 되어 버린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개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의뢰에서 벌어지고,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하사물로 받아야 한다. 고백 루터파도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가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을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사제주의적인 요소가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로마교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대신하여 마리아를 공동 중보자로 승배하려고 하는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였고 항상 자신들의 설교와 저술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였다.¹¹⁾ 또한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를 통해 중세의 모든 인간성 신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만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도적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하나님의 성육하신 자기계시이며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성경적으로 확정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완성과 총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신학을 반대하였으며,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구원론과 종교적 다원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기독론 일변도의 신학을 추구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또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을 부정하지는 않

11) Cf.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1543* (NJ : Old Pathos Publications, 1994), pp.8, 9 :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떠나 각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수호성인을 찾아 의지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무리를 속의 한 평범한 개인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였다.”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vol.19.) on Acts 14-28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p.247 :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 구원의 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다.” John Calvin, *Comm.*(vol.19.) on Romans, p.19 : “전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John Calvin, *Comm.*(vol.21.) on Colossians, p.146 :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중간이며 종국이시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떠나 존재하거나 또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Ewald M. Plass(ed.), *What Luther Says: A Practical In-Home Anthology for the Active Christian* (St. Louis, MO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8), p.148 :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조(信條)에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신조의 연관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 신조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p.202 :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인자에게 의존하게 하셨으며 그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셨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았다. 그들은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2.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중세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력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Pelagianist)은 대표의 원리를 따라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협력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격언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라는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였다. 칼빈은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야만 한다”고¹²⁾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혼합하려는 것은 사실상 은혜를 망가뜨리고 참된 구원을 훼손하는 것일 뿐이며, “마치 사람이 포도주에 진흙투성이 쓴 물을 타는 것과 똑 같다”고¹³⁾ 비판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인간 자신의

12) John Calvin, *Comm.*(vol.8) on Isaiah 33-66, p.21.

13) *Inst.*, 2.5.15.

능력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¹⁴⁾ 그의 선행도 인간 자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루터도 인간의 타락과 무능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으며 당시에 로마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Diatribe on Free Will」에 대응하여 「The Bondage of the Will」(1525)를 저술하였다.¹⁶⁾ 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노예의지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선행과 공로도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일의 유효한 동인(動因)과 방법이라는 것이다.

17세기 화란의 개혁교회가 도르트 신경을 통해 확정한 소위 구원에 대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성경적 구원의 진리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직 은혜로”의 원리는 개혁자들의 신학을 모든 자력주의의 도식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철저한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 은총의 신학 위에 서게 해주었다.

2.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로마교는 칭의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뿐 아니라 인간의 협

14) John Calvin, *Comm.*(vol.19) on Romans, p.217 : “신앙 그 자체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15) Inst., 3.15.3. : “우리의 행위에 있어 칭송할 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16)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the Will: A new translation of De servo arbitrio* (1525) *Martin Luther's reply to Erasmus of Rotterdam* (Fleming Revell Co., 1957).

력에 의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로마교에서 칭의와 성화는 실질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그들은 성경 원문의 헬라어 “의롭게 하다”(dikaioō, 롬3:28)를 법정적 의미를 지닌 “의롭다고 선언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가타라틴어 성경에서 “의롭게 만들다”(justificare)로 잘못 번역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칭의를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에서의 선언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편의 선한 행위와 성화의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즉 인간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1521년 독일어 신약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롬 3:28을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을 따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윤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¹⁷⁾ 번역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계략과 지옥의 문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칭의”(justification)의 신조는 “우리가 행위 없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선언되는 것을 말한다”고¹⁸⁾ 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그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때,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아니한다. 믿음은 이같이 말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는가? 믿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공로를 세우셨는가?”¹⁹⁾ 이는 우리의 구원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7) Rom. 3:28 : "So halten wir nun dafür, daß der Mensch gerecht werde ohne des Gesetzes Werke, allein durch den Glauben."

18) Ewald M. Plass(ed.), *op.cit.*, p.701.

19) Ewald M. Plass(ed.), *op.cit.*, p.496.

그 후 1530년 6월 25일 루터의 추종자 멜랑흐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Augsburg Confession)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공로와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Article IV: Of Justification)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었다. 칼빈 역시 칭의론에서 “의의 전가”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값없는 의를 얻는다”고²⁰⁾ 말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오시안더(Osiander)가 “dikaioō”를 “의롭게 만들다”로 설명한 것을 비판하였다.²¹⁾

개혁자들이 이해한 칭의는 개인의 영적 도덕적 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을 옷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전가(imputation, 전달되어 소유됨)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기 이전에 그리고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수단으로 단번에 자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선언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오직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며, 믿음도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적 은혜의 선물(엡2:8-10, 빌1:29)이기에 인간의 믿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的 원리를 통해 윤법폐기론자들처럼 행위는 모두 필요 없다거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선행과 성화의 노력이 구원(칭의)의 근거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이다. 선

행과 성화는 칭의의 열매와 표시이지 결코 구원의 전제와 수단이 아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리로 불리는 “오직 믿음으로”的 원리는 구원적 신앙의 조건(수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성령의 선물인 신앙은 신학의 내적원리로서 외적원리인 말씀과 더불어 개혁신학을 말씀과 성령 즉 주객관의 균형을 가진 신학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도덕주의와 윤법주의에로의 회귀를 막아주는 원리이기도 하다.

2.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였지만 사실상 그 영광의 실체와 진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었다. 칼빈은 당시의 그러한 교회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맹각 속에 방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고²²⁾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주요한 목적으로 표명하는 자는 백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하다”라고²³⁾ 보고하였다. 사실상 로마교는 인간 선행에 의한 칭의의 교리와 인간 교황을 중심한 교권주의의 야욕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 제 8 계명을 철저하게 위반하였다.

개혁자들은 그러한 로마교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사람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를 바

20) *Inst.*, 3.11.1.

21) *Inst.*, 3.11.6. 칼빈은 칭의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결정적 성화를 포함시켜 이해함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죄의 혼적들로부터의 절진적 성화 속에 있다고 함으로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서로를 구별하고 있다.

22) John Calvin, 'Reply to Sadolet' in *Tracts and Treatises of John Calvin*, vol.3. (Grand Rapids, MI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8), p.49.

23) John Calvin, *Comm.*(vol. 6) on Psalm 109, p.291.

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해서만 도움이 될 뿐이다”고²⁴⁾ 하였으며, 칼빈도 우리가 선택 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그들은 생애의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철저하게 실현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날 것을 열망하였다.²⁶⁾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 제1문답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로 마교에 의해 주장된 성속의 이원적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개혁자들은 삶의 전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평가들 가운데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던 종교개혁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문화변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많은 역사가들이 당시의 제네바의 노동윤리, 공공교육, 시민경제 개선, 음악과 예술의 진흥에 놀라움을 표하였다. 왜냐하면 죄와 은혜의 신학,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주권, 행위를 떠난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의 강조가 즉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인간 사회의 그러한 놀라운 윤리적 변혁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24) Ewald M. Plass(ed.), *op.cit.*, p.538.

25) *Inst.*, 2.6.3., *Comm.*(vol.6) on Psalm 115, p.358.

26) Cf.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1979, p.242 :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삼을 때에도 신의 영광의 개념이 그의 사고 속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를 계시하신 신, 그 신의 영광이 문제라는 것을 주의하면 되겠다. 칼빈에 의하면 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미해야 한다.”

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개혁자들은 결코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챔페인을 벌이지 않았다. 다만 바른 복음을 앞세우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선포된 이러한 다섯 가지의 “오직”(solas)의 성경적 원리는 지속적인 교회개혁의 지표와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오직”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즉 그 무엇도 성경, 그리스도, 은혜, 신앙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와 그 무엇과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강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개혁신학의 특성을 계속 우리의 신학적 신앙적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되고 조명되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오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정황은 어떠한가?

3. 한국 개혁신학의 현주소

한국의 개신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로교회이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는 모두 개혁신학과 신앙을 표방한다. 그처럼 소위 개혁신학과 개혁주의를 자처하는 오늘 한국 장로교는 주로 3노선으로 구분되어있다.

첫째는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 노선으로 합동(총신대), 합신(합신대), 고신(고신대)을 말한다. 박윤선의 후예들로서 칼빈을 중심한 개혁자들의 신학을 추구한다.²⁷⁾

27) 박윤선 박사는 고신(14년), 총신(12년), 합신(8년)에서 가르치시고 고신의 파수꾼(218편), 총신의 신학지남(40편), 합신의 신학정론(12편)에 논문을 투고하셨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둘째는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 노선으로 기장(한신대)을 말한다. 개혁자들의 정통 개혁신학에서 떠나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 사상(정치신학, 민중신학)으로 가울어 있다.

셋째는 중도적 신정통 개혁신학 노선으로 통합(장신대)을 말한다. 장신은 다양한 신학을 포용하려는 중도온건노선을 표방하지만 실상 나뭇가지만 개혁신학으로 뻗어 있고 그 뿐리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토양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통합은 사실상 고신, 합동, 합신 보다는 기장과 대화의 공감대가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신대와 총신대 그리고 합신대는 계속 미국, 화란, 남아공화국 등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연구한 신학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나 장신대에는 그러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장로교가 저마다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신학노선의 분리와 변질의 과정에서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못하였거나, 또는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울어 개혁신학 본래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에 있다. 개혁신학과 신앙의 본래적 생명력을 상실한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교회의 무기력과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9월 12일에 공포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신앙 선언문”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곧 ‘오직 성

신학교의 유학을 마친 1937년 이후부터 개혁신학을 의식하며 설교하셨다고 했으며, 1946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 설립 취지문에서 칼빈주의 신학 또는 개혁신학에 근거하여 한국교회건설과 기독교적 국가건설 그리고 기독교문화건설 위해 고려신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 후에 1950년대부터 칼빈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경만’ ‘오직 은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강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적 토양 속에서 여전히 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의 순수한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개혁신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과연 종교개혁의 유산인 앞서 말한 개혁신학의 특성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앞서 살펴 본 개혁자들의 다섯 가지의 “오직”的 원리를 따라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3.1.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늘날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더불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성경의 완전무오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점차 많아져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교회 중에 성경의 교훈과 명령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문화가 성경의 권위적 역할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논리와 마케팅 전략이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방법을 대신하는 것을 본다. 또한 성경적 원리 대신에 수요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원리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 설교, 전도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구속의 은혜가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호갈등과 내적 상처로부터의 단순한 심리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설교에서 조차 성경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지 않고 성경 이외의 현대의 세속적 권위와 지혜에 의존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체험과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 확신을 직접적 계시의 차원에 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세상 학문과 지식 그리고 잡다한 세상 이야기로 혼잡케 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오늘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떠나 기독교를 개혁자들이 항거했던 인간중심적인 종교로 다시 만들어 가는 교회타락의 현대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시대적 조류의 요청이 제아무리 높아도 성경말씀을 제쳐두고서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경영학적 생각과 필요를 따라 복음과 신앙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신학적 반성 없이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되어진 현대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결국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타락과 훼손으로 몰고 갈 것이다. 웰즈는 「No Place for Truth」(1997)에서 현대의 저급한 현대사상과 문화에 아부하여 성경의 진리를 위한 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 너무도 변질되어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²⁸⁾

28) Cf. 이환봉, 「개혁주의 성경관」,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5, pp.178-186. 로마교는 오늘도 오직 성경의 원리에 대항하여 트렌트 종교회의 때보다도 더 악화된 성경과 전통의 관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며 우리의 양심과 행위의 충족한 표준임을 재확인한다. 성경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진리와 참된 삶의 모든 법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과 반대되거나 독립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며, 개인의 영적 체험이 계시적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의 감성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임의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유일한 원천과 구원진리의 유일한 선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직무임을 믿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을 따라 현대 대중문화의 영상과 약속과 기호를 통해 교회를 바라보는 거짓된 시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실제적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직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3.2.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

오늘날 우리도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확신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높아

개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성경만을 말하고 전통을 말하지 아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성경을 전통의 초기 단계 또는 원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처럼 불완전한 성경이 로마교회에 의해 보다 완전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만 간다.

중세 계몽운동(the Enlightenment)의 미덕이었던 ‘관용’과 더불어 상대주의(relativism)는 18세기 아래 현대 사회의 주요한 신념이 되어 왔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세계의 보편적 미덕이 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 보다 철저한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천주교가 석가탄신을 축하하고 조계종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이 종교적 관용과 미덕으로 극구 칭송을 받으며, 주요 일간신문은 “하나님이 절에 가고 부처님이 교회 갈 때” 비로소 평화공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평하고 있다. 물론 종교 간의 평화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오늘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회생을 노래하는 소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비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사라져 가고 오히려 십자가 없는 번영과 영광, 자기긍정과 자력구원의 환상으로 가득하다. 스프루(R. C. Sproul)이 “자신이 하나님의 검열을 통과하기에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그 만큼 더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거나 노래할 마음을 점점 잊어 가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은 각기 그 이름이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미국의 기

독교 신자들이 3분의 2에 이른다고 한다. 버지니아 대학교(Virginia University)의 사회학자 헌터(J. Hunter)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생의 35%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George Barna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도들 중의 35%가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구원하실 것이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한국갤럽의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도 불신자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38.9%였는데 2004년에는 31.3%로 15년 사이에 약 8%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그리스도 없이도 불신자 구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8%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 중에서 “여러 종교 교리는 결국 비슷한 진리를 말한다”에 53%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9%가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정하는 보편구원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4년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타종교로 개종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그리스도로”的 원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은혜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회생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우리의 칭의와 회해를 온전히 이를 수 있음을 믿는다. 만약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강권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복음을 전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3.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중세 종교개혁 전야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은밀히 교회 안에 침투하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며 그들을 교회 안에 완전히 용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자유주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도 배태되어지고 점차 용납되고 권장되기 까지 한다.

펠라기우스는 대표의 원리를 따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담은 언약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보기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본보기가 되실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망령을 따라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도 주로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인격과 사역에 보다는 그리스도의 모범자적 삶을 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한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보다는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많이 들었으나 우리를 주님께서 섬기신다는 것은 들어보기 힘들다.

복음주의자들의 수호성인이고 대부홍사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원죄, 대속, 칭의, 성령에 의한 중생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한 마디로 그는 펠라기우스주의자이었다. 오늘 일부 한국의 부흥사들도 동일한 길을 앞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강조보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강조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교리를 좌초시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몽주의의 중요한 원리이며 타락한 인간본성의 산물인 인간성에대한 거짓된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가고 있다. 복음주의 교

회 안에도 자가긍정의 복음에서 번영의 복음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복음을 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죄인을 구매할 소비자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에서 단순히 실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진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이르기 까지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인간의 사역으로 만들려는 거짓된 기획이 난무하고 있다. 개혁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대로 우리의 구원적 신앙과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최소한 스스로 무언가 행할 수 있다는 바리새적 영적 교만을 교회 중에서 완전히 뿐리 뽑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키워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축복과 번영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알짜한 약속만을 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은혜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진리를 더욱 힘 있게 외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함을 받았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사역이 아니며 인간의 방법과 기술과 전략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단언한다.

3.4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이 1994년 3월 29일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 연대”(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 Together)라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동의한다”고 함께 선언하였다. 이 성명서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팩커(J. I. Packer),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등의 유수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서명하였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오직”(Sola)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²⁹⁾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1547년)가 결정한 바대로 “만약 누군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협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³⁰⁾ 교리적 선언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오늘날 로마교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례준수와 선한 행위가 구원(칭의)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추가되어 있는 한에서의 동의를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주입된 의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더욱 의롭게 만들어 주고 자신의 죄를 깊을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인간 죄인의 공로가 협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신인협력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루터교 세계연맹(1999년)
과³¹⁾ 서울 감리교 세계대회(2006년)를 통해서 자신들의 칭의교리

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마지노 라인”(최후 방어선)과도 같은 개혁주의(칼빈주의)를 주적(main enemy)으로 규정하고 특히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집중 공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연대를 통한 협공에 진력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를 참된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로 생각하여 “교회가 일어서고 또는 넘어지는 신앙조항”(articulus cadentis et stantis ecclesiae)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자는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재확인한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믿는다. 칭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적 공로이나 우리 안에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와 그 어떤 인간적 제도와 의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단호히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종교적 헌신과 윤리적 삶)도 부정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3.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상실이 보편화되어 있어 통탄할 정도이다. 이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

29) Cf. R. C. Sproul, *Getting the Gospel Right : The Tie that Binds Evangelicals Together* (Grand rapids, MI : Backer, 1999)

30) *Canons on Justification*, 9 : “If anyone says that a sinful man is justified by faith alone, meaning that no other co-operation is required to obtain the grace of justification...let him be anathema.”

31) Cf.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Grand Rapids, MI : Eerdmans, 2000)

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에서의 이탈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인간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복음 설교를 상품 마케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간의 기술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간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권주의자들과 좌우편의 영광만을 탐하여 높아지기 위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더러운 망령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과 야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 하시지 않는다.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에서 인간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인간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경배이어야 한다.³²⁾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기와 성공이라는 우리 자신의 제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점차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경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한국갤럽의 개신교 신자들의 의식조사에 나타난 바대로 신앙의 이유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가 59.4%에 이르고 ‘현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수로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도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은 ‘건강한 것’(50.1%)이었고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31.4%), ‘돈 많은 것’(29.8%), ‘마음이 평안한 것’(2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분명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점차 인간 중심의 신앙

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여 주는 적신호이다. 그러나 개혁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的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으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전 사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만약 오늘우리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와 혼돈되고 우리의 설교에서 울법과 복음이 무시되거나 자기개발과 자아존중 또는 자아성취가 복음의 대안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학은 항상 교회의 역사적 신앙과 교리를 재생하여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현실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 교회로 하여금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예전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이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교회는 바른 신앙에서 떠날 뿐 아니라 현실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게 된다.

개혁신학은 성경과 교부들 그리고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교회의 뿌리 깊은 역사적 신앙이며, 지난날 교회의 생명력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 우리 개혁신학의 현주소는 학문적으로도 사실상 한국교

32)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pp.16-19 : 칼빈은 여기서 종교 개혁 당시의 공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비주의와 무의미한 연극 공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연극 공연” “헛된 연극 쇼” “화려한 의식들” “경박한 연주”와 같은 용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다.

회의 신학을 주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목회현장에서도 그 힘과 영향력을 거의 상실해가는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또한 신학적 논쟁과 학문적 대화에서 전반적으로 수세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적합성을 상실한 개혁주의는 목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신학으로서 오히려 목회와 교회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목회자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신학자들도 현실교회에 대해 눈감고 상아탑 속에서 학문만을 논하고 이론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정작 교회개혁을 주도하려하지 않고 다만 학문세계에만 안주하려고 한다. 신학 논문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와는 항상 거리가 있으며 교회의 현실적 요청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때마다 적절히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다. 결국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현장에 들어선 후에는 의도적인 고향 상실증과 신학적 건망증에 걸려 자신의 고유한 신앙의 뿌리와 신학적 유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정조차도 하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결음 더 나아가 자기비하적인 편론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오히려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 신앙의 최대의 적이다. 그들은 오늘도 개혁주의 즉 역사적 칼빈주의를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일부 루터교를 위시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와 신학서를 안에서는 상호 신학적 협력과 연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일 개혁자들이 지금 이러한 한국의 장로교회를 방문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개혁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기뻐하며 조롱하는 복음의 원수들에 둘러싸인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4. 결론: 한국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천적 과제

오늘 이러한 개혁신학의 무기력과 위기의 실제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할 실천적 과제들을 생각하고자 한다. 오늘 한국 개혁신학의 무기력과 위기의 현실적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개혁신학 또는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를 자처하면서도 원전연구를 통한 칼빈의 신학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가 너무도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정에 밝은 한 미국 칼빈학자가 '한국에는 칼빈은 없고 칼빈주의자들만이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칼빈신학 자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다시 원전으로(ad fontes) 돌아가는 연구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한국 장로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독교강요조차도 한국교회를 대표할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직접 책임변역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원전을 통한 칼빈신학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칼빈 이후의 17세기의 일부 스콜라적 정통주의자들처럼 우리의 개혁신학도 개혁자들의 본래적 생명력과 신학적 정체성에서 단절되어지고 자연히 교회를 위한 실제적 영향력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적 연구 자료들에만 빼여 있어서는 세계 신학의 본류에 진입할 수 있는 창의적 신학연구와 한국 개혁신학의 자립은 요원할 뿐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혁신학의 원전을 중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고전어 훈련학교(라틴어 웹강좌)를 개설하여 고전 원문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고전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칼빈의 모든 원전을 라틴어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도 연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전연구에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옛것을 모르면 새것을 추구할 수도 없다. 옛것을 사랑하고 보존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의 진정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개혁은 “reformanda quia reformata”(개혁되어 졌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즉 “개혁을 통한 개혁”이어야 한다. 먼저 지난날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 왔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원전을 통해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의 연구의 출발점과 중심이 되는 칼빈의 신학 자체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칼빈의 신학뿐만 아니라 동시대 개혁자들에 대한 보다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개혁신학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성장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연구하여 개혁신학의 사상적 계보와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루터와 멜랑흐톤, 츠빙글리와 불링거, 부서와 베자 등의 칼빈 동시대 개혁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개혁교회의 신학자들과 개혁교회 신앙고백문서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혁신학이 학교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만 머물고 또는 고전적 연구에만 그치고 오늘 교회의 목회와 신앙생활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대한 현실 관련성을 추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신학이 현대사회와 문화의 전 분야에 대한 신

학적 반성과 평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능동적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재생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뿐만 아니라 미래의 목회를 대비하게 해줄 수 있는 예견적 기능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지 못한 한국 개혁신학은 결국 교회와 사회에 대한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에 아직 칼빈을 비롯한 역사적 개혁주의 연구를 위한 제대로 구비된 전문도서관도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신학교 안에도 최소한의 연구기반조차도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연구인력의 개발과 지원 및 초교파적 연대는 사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먼저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부흥을 위한 최상의 연구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혁주의 및 칼빈과 관련된 모든 연구도서와 연구논문을 총괄 수집하여 최상의 연구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혁주의 전문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적 거리와 한계를 넘어 공동연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고전들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웹상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또한 어디에서든지 고전의 원문을 검색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와 칼빈 연구와 관련된 연구소 및 연구 인력의 네트워크(Think Tank)를 형성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연구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학자들 간의 연구교류를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넷째로 개혁신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교회의 지원이 본약하였다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우선적으로 신학교와 신학 교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학교를 항상 감독

하고 살피며 선도하고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다. 특히 그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내일의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지원하는 오늘의 세대가 없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없다.

교회가 항상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한다면, 교회의 고유한 신학의 발전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은 실로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신학의 위기에 대한 교회의 냉소적 무관심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교육과 목회에서 개혁주의의 신앙의 뿌리와 신학적 유산을 정말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 장로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장자교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고신, 합동, 합신의 교회들의 정체성과 존재이유가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수행과 확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신학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개혁도 어떤 정치적인 방법과 일시적인 운동에 털려있지 않고 먼저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새롭게 발전시켜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결음 더 나아가 한국장로교회의 최대의 과제인 교회연합도 우리 모든 교회의 위대한 스승 칼빈의 신학 아래 하나 되는 신학운동을 통해 가능하리라 믿는다.

특히 통합과 기장에 비해 고신, 합동, 합신은 한국 개혁신학의 보루들로서 박윤선 박사의 개혁신학을 계승하고 발전 그리고 확산시켜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바른 신학은 바른 교

회의 기초와 바른 신앙의 내용이며, 그리고 바른 생활의 원리이다. 우리 모두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새로운 부흥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